주·야간보호센터 061)394-0123
신세계요양원
061-395-2580 장성읍 방울샘길 12
(장성읍 영천리 1493-5)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489호 (음력 2월 2일)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광주·전남 학교, 새학기 마스크 없이 등교…다중집합 수업 착용

마스크 착용 여부는 자율…통학버스·단체 행사 의무착용

의무 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해제…학교시설 소독 강화

2023학년도 새학기 광주와 전남지역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등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남도교육청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후 처음 맞는 새학기에 학생들은 원격 수업을 하지 않고 대면수업 한다고 20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 할 수 있으며 통학버스·시내버스,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음악 수업 등 좁은 공간에서 많은 학생이 모이는 수업과 행사의 경우 착용해야 한다.

학교 교실과 복도, 운동장, 급식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다.

개학 후 2주동안은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지정하고 방역인력을 각급 학교에 파견하고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등교를 앞두고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의무 칸막이도 해제했으며 접촉이 빈번한 시설과 기구에 대한 청소·소독, 식사시간 창문 상시 개방 등의 조치 등을 강화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입했던 가정학습 허용일수 57일은 폐지했으며 학칙에 따른 교외체험학습도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게 최대 10일 이내에서 허용된다.

유치원의 경우 연간 최대 60일로 완화된 유아학비 인정일수를 한시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반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학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히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만에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돼 예전의 모습으로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학교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승호 기자

'봄소식 전해요' 20일 오후 대구 달서구 대천동 대구수목원 성서 1 양묘장에서 직원들이 개화한 팬지 모종에 물을 주고 있다.

'소주 1병 6천원' 시대 오나

4월부터 맥주 주세 30.5원 올라…전년보다 인상폭 커

서민 주류인 소주와 맥주 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또 뛸 전망이다. 올해 주류세 인상폭이 작년보다 크고, 원재료와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소주나 맥주 가격이 1병당 5000원을 넘는 상황에서 추가로 1000원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인 주세가 리터(ℓ)당 30.5원 오른 885.7원이 된다. 지난해 ℓ당 20.8원 오른 데 이어 올해는 인상폭을 키웠다.

맥주 세금 인상은 주류업계의 출고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맥주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건비, 전기료 등도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도 맥주 가격 인상을 부채질한다.

지난해 하이트진로는 테라와 하이트 출고가를 7.7%,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출고가를 8.2% 각각 인상했다. 올해는 인상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주세 변동은 없지만 생산 비용이 오른 소주 역시 가격 인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소주의 원료가 되는 주정(에탄올) 공급 업체들은 지난해 2월 주정 가격을 7.8% 올렸다. 소주병 공급 가격도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뛰었다. 주정 공급 업체가 추가 인상에 나설 경우 소주 가격도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류 업계가 출고가를 인상하면 판매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소주 출고가가 1병당 85원 인상되면서 마트·편의점 가격은 100~150원 올랐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소주 가격은 병당 500~1000원 인상했다. 소주·맥주 가격이 5000원 안팎으로 오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출고가가 또 인상될 경우 6000원에 판매하는 업소들도 나타날 전망이다.

김재환 기자

농어촌공사, '식수난' 완도 섬 지하수 뚫어 하루 1450t 공급

전남지역본부, 완도군과 손잡고 가뭄 극복 온힘

한국농어촌공사가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완도 섬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완도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한 '섬 지역 긴급 지하수 개발'에 성공해 하루 1450t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완도 지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우량이 44㎜로 평년대비 16% 수준에 불과해 제한 급수를 시행하는 등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전남지역본부와 완도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완도군 금일도, 노화읍 넙도, 소안도, 약산도에서 전기탐사와 시추조사 등을 추진해 13공의 지하수 개발에 성공했다.

조영호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하수 개발 성과가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하수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개발부터 점검까지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공사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기술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긴급 지하수 개발 사업은 KRC지하수지질 기술지원단이 주도로 성공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